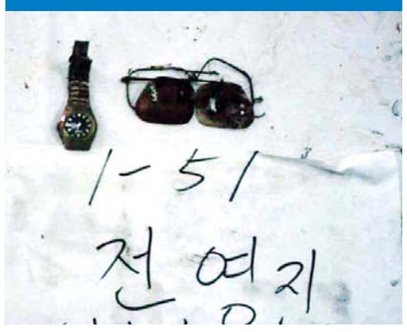
■ 수장고 보관 14년, 5·18유품들에 얽힌 사연들

참혹한 '그날' 생생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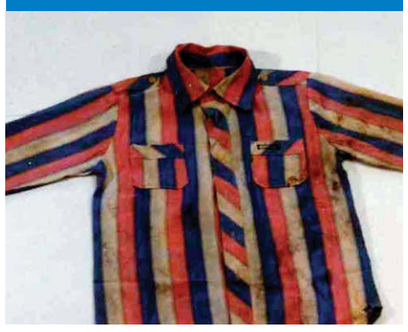
한 짝만 남은 샌들에 10원짜리 동전도 가지런히

박관현씨 관 덮은 태극기

전영진군 손목시계



방광범군 핏자국 티셔츠



만년필과 라이터

빗바랜 태극기와 핏자국 선명한 티셔츠. 총성의 충격에 멈춰선 시계. 생과 사의 기로에서 잠깐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던 시민군의 빗.'K'자가 선명한 혁대 버클. 만년필과 10원짜리 동전….

1997년 5·18 묘역 성역화 사업(국립 5·18 민주묘지 이장)을 추진하면서 구 망월묘역(현재 광주시립묘지 3묘역)에서 발굴된 희생자들의 유품은 '그날'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전시관 건립 예산난으로 14년동안 5·18 기념문화센터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유품〈광주일보 5월 3일 1·3면〉들을 센터의 도움으로 한점 한점 살펴보았다.

오동나무 6번상자에는 80년 5월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당시 30세)씨의 관을 감싼 태극기가 보관돼 있다. 박씨는 민주화 운동의 불을 지핀 뒤 투옥돼 1982년 단식투쟁중 옥사했다. 상자 안에는 10원짜리 동전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8번상자에는 '수/21'에 멈춰선 손목시계와 안경이 있었다. 이 시계의 주인은 고 전영진(당시 17세·대동고 3년)군. 전군은 5월 20일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뒤 다음날 몰래 집을 나섰다가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전군이 사망하면서 시계도 멈춰섰던 것으로 보인다.

7번상자에는 방광범(당시 13세·전남중 1년)군의 삼색 줄무늬 티셔츠가 보관돼 있었다. 방군은 1980년 5월 24일 남구 효덕동 저수지에서 귀가하던 중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이 티셔츠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하다.

이 같이 당시 처참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5·18 관련 유품은 모두 5종류 221점. 2001년 발굴된 무연고 묘(11기)에서는 머리카락·정부미 포대·실타래·알사탕 봉지·흰색 사탕 껍질 등이 발견됐다. 이들 유품은 오동나무 상자 1·2번에 보관돼 있다. 이밖에 한 짝만 남은 샌들, 등산조끼에다 잠옷(하의) 등 희생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유품들은 보는 이를 숙연케 한다.

5·18 기념문화센터 관계자는 "유품들 중에는 정부미 포대·메스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처참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유품이다"며 "조만간 일부 유품에 대해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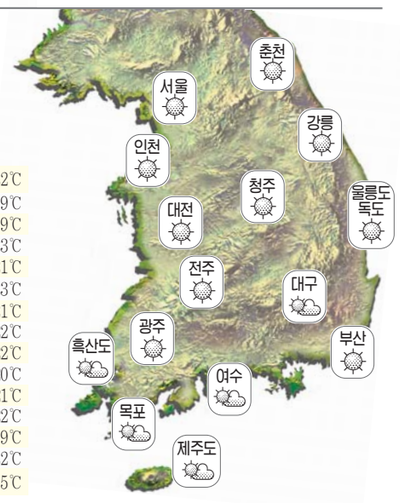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9분 해짐 19시 20분 / 달뜸 05시 52분 달짐 20시 26분

외출 조심 조심…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조금	9/22℃
목 포	구름점차많아짐	9/19℃
여 수	구름점차많아짐	12/19℃
나 주	구름조금	7/23℃
완 도	구름점차많아짐	9/21℃
구 례	구름점차많아짐	6/23℃
해 남	구름점차많아짐	6/21℃
장 흥	구름점차많아짐	6/22℃
순 천	구름점차많아짐	10/22℃
영 광	구름조금	6/20℃
진 도	구름점차많아짐	7/21℃
전 주	구름조금	7/22℃
군 산	맑음	7/19℃
남 원	구름조금	6/22℃
흑산도	구름점차많아짐	9/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매우높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2:49 14:42	08:02 19:58
여수	09:25 21:57	03:24 15: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날 씨						
최저/최고	10/23	10/22	14/23	14/24	14/22	16/19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檢 "농협 해킹, 北 사이버테러"

잇단 디도스 공격과 동일 집단 치밀한 준비

지난달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한국IBM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81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방식 등 독특한 제작기법이 앞선 두 차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와 방식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공격에 활용한 좀비PC를 조종하기 위해 이용한 IP(인터넷 프로토콜) 1개는 3·4 디도스 사건 때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두 차례 디도스 사건에서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범인들이 이번 공격 명령의 발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을 2010년 9월4일 좀비PC로 만든 뒤 7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서 원격 조정으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문제의 노트북에 악성코드와 함께 일명 '백도어'라 불리는 해킹 및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하면서 공격대상 IP와 최고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14초 공격명령 파일을 노트북에 설치한 뒤 그날 오후 4시50분10초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명령을 실행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2 · 3차 공격을 감행해 총 587대의 서버 가운데 273대를 초토화시켰다.

이후 범인들은 원격으로 노트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 공격 성공 사실과 파괴된 서버 수까지 확인한 뒤 오후 5시20분께 노트북에 남아있던 명령 프로그램 등 관련 증거를 일제히 삭제해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하철 자전거도 탑승

이달부터 일요일·공휴일에만

이달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지하철 전동차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3일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공공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에 한해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맨 앞칸과 뒤칸을 자전거 휴대 탑승 전용칸으로 지정했으며, 이용 첫날인 지난 1일에는 12명이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 전동차를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시범운영을 한 뒤 불편사항을 점검해 보완하고,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해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5㎞ 이내의 근거리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하면 장거리 이용수단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10곳 중 1곳 '위생불량'

광주시 36곳 적발

광주지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곳 중 1곳은 위생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23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 중 11.14%에 해당하는 36곳이 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된 곳 중 J어린이집 등 3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S어린이집 등 5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신지체장애인 맞춤서비스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센터장 노인숙)는 지난달부터 북구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를 실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체험활동, 가족교육 등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분증, 정신과의사 소견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자(60명)로 선정된 후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숲속 그늘서 주로 자라는 멸종위기식물

〈11〉 노랑붓꽃

노랑붓꽃은 15㎝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나무가 많은 숲속의 그늘에서 자라고, 4~5월에 노란색 꽃이 긴 꽃대 끝에 2송이씩 핀다.

1913년 일본학자 나카이교수가 내장산 국립공원지역인 정읍 입암면 노령에서 처음 발견해 신종으로 발표한 후 199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200여 포기가 발견돼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자생지의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이다.

노랑붓꽃은 학명에 'koreana'가 붙은 한국 특산종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